

“물 마시는 것조차 어려운 미얀마 난민들에 ‘희망’ 되길”

지스트 ‘희망정수기’ 기증

지난해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난민들을 위해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등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과 국회가 손잡고 제작한 ‘희망정수기’ 기증식이 최근 지스트에서 개최됐다. <사진>

기증식은 광주를 방문한 소 로버트(Saw Robert Htwe) 대표의장(카렌난민기구 의장)과 김기선 총장, 이윤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정주 지스트 발전기금 이사장, 김경용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장(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희망정수기”는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의 수(水)처리 기술과 ㈜아모그린텍의 소재 기술을 활용해 전기 없이 증력식만으로 작동하도록 제작한 막(膜)여과 정수장치다. 중력에 의한 수압을 이용해 오염된 물을 막에 통과시켜 수중에 존재하는 입자성 오염물질 및 세균을 높은 효율로 제거한다. 별도 전기 공급이 필요 없고 특별한 유지보수 없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난지역 및 피난지역에서 매우 유용하다.

특히 수처리 장비 기술로 개발한 희망정수기는 지리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지 상황에 따라 최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맞춤형 소규모 수처리 시스템으로, 지난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



로벌 협력 15대 유망기술’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과학기술계가 기부에 동참했다.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가 기부금으로 제작한 희망정수기 112대는 미얀마-태국 접경지역에 있는 카렌난민기구(KRC, Karen Refugee Committee)와의 협

력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미얀마 난민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희망정수기 시연을 함께 한 소 로버트 대표의장은 “희망정수기는 미얀마-태국 국경지역 밀림 속에 흩어져있는 피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호품”이라며 “설사와 장티푸스 등의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피난촌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학생 주도 교육혁신단 ‘시소’ 출범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에 주도적인 관심을 갖고 혁신을 이끌어 경쟁력을 쌓아간다.

동강대 교육혁신원과 교양교육지원센터는 최근 교내 도서관 5층에서 ‘학생주도 교육혁신단, 시소(See So)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

‘시소’는 학생의 관점에서 전공, 교양, 비교과, 학사제도 등 영역별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See) 이를 통해(So)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주도의 교육혁신단이다.

동강대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지난해까지 서포터즈단을 운영했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DU융합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동강대 ‘시소’는 ▲소방안전과 ▲건축과

▲전기과 ▲임상병리학과 ▲보육복지학과 ▲군사학과 ▲의식조리제빵과 ▲간호학과 ▲뷰티미용과 ▲유아교육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등 11개 학과 총 15개 팀이 참여해 모니터링단과 지지단으로 활동한다.

모니터링단은 ▲AI융합전공 ▲Meta 융합전공(K-헬스케어, K-라이프 K-컬처)으로 나눠 설문 문항을 구성, 교육과정을 꼼꼼히 체크한다.

지지단은 교육과정을 취재해 이를 글로 소개하고 영상을 제작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 업로드도 한다.

출범식이 끝난 뒤 ‘모바일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방법’과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 노하우’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한국어교육학과, 한글날 백일장대회 진행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한국어교육학과는 제576회 한글날을 맞아 최근 학교에서 ‘제2회 한글날 맞이 백일장 대회’를 진행했다. <광주여대 제공>

외출상에 성낙수·로스 킹·한분옥

재단법인 외출회는 제44회 외출상 수상자로 성낙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로스 킹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교수, 한분옥 울산시 예술인총연합회 고문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술 부문 수상자인 성 명예교수는 국어 방언학의 연구 방법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로스 킹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주 콩코르디아 언어 마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에 크게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실천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공동 수상자인 한분옥 고문은 ‘외출 시조 문학상’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쳐온 점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선우은숙, 4세 연하 유영재 아나운서와 재혼

배우 선우은숙(63·왼쪽)이 4살 연하 아나운서 유영재(59)와 재혼했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11일 “선우은숙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는 아나운서 유영재로 현재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진행 중”이라며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과 신뢰를 쌓아왔으며, 최근 혼인신고를 마치고 양가 상견례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1978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도지’, ‘아들과 딸’, ‘가을동화’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 1981년 결혼해 연예계 잉꼬부부로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2007년 26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마녀의 게임(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문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꾸러기 식사교실(재)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00 진검승부(재)	15 헬로킴지 글로벌 동물 뉴스 45 똑딱구조대 2	00 애니걸러리 30 슈퍼다이노 45 하나와 숲속친구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호적메이트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문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육상/수영/양궁/태권도>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문체공항(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신상출시 펀스토링(재)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마카엔로니 2 15 뽀뽀뽀족 포크가족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20 닥터 365 25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언니랑 놀래?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테크	50 SBS 8 뉴스
8	10 고양이 목에 마이크달GO 30 일일연속극 내 눈에 콩깍지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진검승부	00 금토드라마 금수저 몰아보기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30 라디오스타	40 편먹고 공치리4-진검승부
11	30 KBS 뉴스라인	00 스튜디오 K		
12	10 시사기획 창(재)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농천 예능 따라잡기(재) 55 통합뉴스룸 ET(재)	10 수목드라마 일당백집사 프리미어 30 금수저(재)	20 나이트라인 50 2022 뮤직플레이 kbc함구음악회(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하프와 친구들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8:00 똥덩방 유치원
0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8:35 한글용사 아이야
08:5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재)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20 EBS 친구들 생생
09:30 어떻게 만들까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3:50 EBS 다크프라임
14: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35 꾸러기 천사들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퍼 피그
16:25 슈퍼퍼퍼 잉글리시(재)
16:40 똥덩방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17:30 히어로 씨클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19:00 비스트 오브 아시아 2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건축탐구-집
20:40 세계테마기행
<나만 믿고 따라와, 베트남-변함없이 빛나는>
21:30 한국기행
<가을, 사할 기행 3부 우리 부대 꽃스님>
21:50 EBS 다크프라임
22:45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3:55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2일(음 9월 17일 戊戌)

36년생 중저대한 일에 직면하게 되리라. 48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풍성한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60년생 힘을 아끼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다. 72년생 확신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라. 84년생 조금의 편의를 도모하다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96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비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31, 78

37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49년생 대화의 부족은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라. 61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73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이리라. 85년생 하는 일이 뜻하는 대로 잘 풀려나갈 거 된다. 97년생 귀찮적이야하면 위엄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0, 76

38년생 한계면에 물리는 형태이다. 50년생 크기로 보지 말고 밑도를 살펴야 할 것이니라. 62년생 기조는 유사하니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 74년생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조후이다. 86년생 힘들었을 때 근력 운동이 되는 원리를 알라. 98년생 목이 마를 때 물을 갖다 주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9, 54

39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우연히 협조자가 나타나서 물꼬를 트는 형상이다. 51년생 마음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여건 조성부터 하고 보라. 63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75년생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발하겠다. 87년생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99년생 무시한다면 위험에 직면한다. 행운의 숫자 : 07, 59

40년생 타인의 실행 방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52년생 잠시 으뜸세를 보이다가 소강상태에 빠지는 형태이다. 64년생 행동을 감하지만 마음은 공방에 가 있다. 76년생 속히 진행할수록 성과가 두드러진다. 88년생 파격적인 행보가 있을 수다. 00년생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로다. 행운의 숫자 : 23, 66

41년생 감당할 수만 있다면 수용하는 것이 백번 낫다. 53년생 고민한다고 해서 즉시 해결될 일이 아니니라. 65년생 설명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변적 분할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감에 낫다. 89년생 반복적인 번거로움은 청산하는 것이 낫다. 01년생 위험 부담을 안을 이유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3, 81

42년생 거친 풍량이 밀려 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비하라. 54년생 조인이 절실한 처지이다. 66년생 합체가 도약해야 할 때다. 78년생 빨리 체념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90년생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02년생 함께할 때는 즐겁겠지만 일단 벗어나면 공허해지겠다. 행운의 숫자 : 30, 74

43년생 불안정하다면 백번이고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 55년생 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이득은 미지수다. 67년생 효율성을 견지하라. 79년생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친다. 91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느니라. 03년생 소신과 주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06, 67

44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56년생 미리 준비해 둔다면 머지않아 힘이 될 것이니 만전을 기하라. 68년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다. 80년생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겠다. 92년생 방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04년생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4, 79

33년생 기회란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니 포착하는데 만전을 하라. 45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7년생 우연한 기회를 제공받고 매우 기뻐할 수다. 69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정을 부르리라. 81년생 외관과 치중하다 보면 내실이 취약해진다. 93년생 반드시 처음과 같이 같아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0, 70

34년생 없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 46년생 마음을 놓은 데서 실수가 비롯되는 법이다. 58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 70년생 일상적인 구조나 속성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82년생 보기 드문 형태 앞에서 놀라리라. 94년생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2, 72

35년생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 47년생 실존적 관점에서 기존 삼아야 할 것이다. 59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71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3년생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95년생 평상시에 안전 의식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62